"지역 대표 문화 관광상품 육성" 천명 해놓고

품바 창작 산실 故김시라 생가 보존엔 나몰라라

무안군 '엇박자 행정' 맹비난

무안군이 '품바'를 지역 대표 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정작 '품바' 창작 산실인 고 김시라(본명 김천동·1945~2001) 생가 보존에는 무관심해 '엇박자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회산백련지 인근인 일로읍 용산리에 위치한 김시라 생가터는 지난 2002년 일로농협으로 부터 빌린 4900만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가 진행돼 지난 2010년 8월 부산 사업가(일로 출신)가 낙찰받아 결국 지난 13일 철거됐다. 생가터에는 여전히 '김시라 생가' 안내판이 세워져 있어 관광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그동안 무안군과 일로 품바보존회는 매년 연꽃축제 기간에 '품바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품바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품바를 무안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육성해 왔다.

특히 문화관광부 2012년 창조지역사업에 '일로 품바 자원화사업'이 선정돼 3억700만원을 지원받고, 오는 2015년까지 국비 9억8400만 원를 지원받는다.

이 밖에도 무안군은 일로 품바보존회에 지난 2006년도부터 4년간 매년 1000만원씩 지원했으며, 2010년에는 일자리창출로 7000만 원, 지난해에는 3000만 원을 지원했다.

지역예술단체는 김시라 생가가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이라며 무안군에서 다시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술단체 관계자는 "품바를 육성하겠다는 무안군이 그동안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생가가 철거되기까지 '나 몰라라' 했다"면서 "품바를 무안 대표 관광문화상품으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주민 김모(일로읍·62)씨는 "일로 품바연구회나 관련단체들은 자기 이익만 찾고, 무안군도 생가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왜 전국 품바대회를 유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고 김시라 생가는 개인소유로 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고 김시라는 1980년 연극에 뛰어들어 구전민요인 각설이 타령을 기초로 연극 '품바'를 만들었다. 1998년 호암아트홀에서 '품바'를 4000회를 공연하면서 최단기 최대 공연 기록으로 한국 기네스에 오르기도 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무안군 일로읍 용산리에 위치한 고 김시라 생가가 지난 13일 철거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여전히 '품바의 창시자 김시라 생가' 안내판이 서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가족과 함께 떠나는 남도 여행지

문화재청, 순천·담양 등 32곳 추천

"가족과 함께 전남에서 교과서속의 문화재와 역사 이야기를 만나세요."

문화재청은 최근 순천시와 담양·구례·진도군 문화유산을 '문화재 누림 가족 수학여행지' 32선에 선정했다.

'문화재 누림 가족 수학여행지'는 가족과 함께 하루 일정으로 국내 여행이 가능한 전국의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전국 문화유산 해설사 70여 명이 추천한 곳이다.

순천시 선암사와 낙안읍성, 순천만은 '가는 곳마다 감탄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도시 순천'이란 주제로 선정됐다.

담양군은 '한국전통 정원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다'라는 주제로 소쇄원과 관방제림, 죽녹원이 선정됐으며, 진도군은 '진도아리랑을 따라가는 예향의 고장 진도'라는 주제로 남도석성과 세방낙조 전망대·소포 남도소리체험 등이 꼽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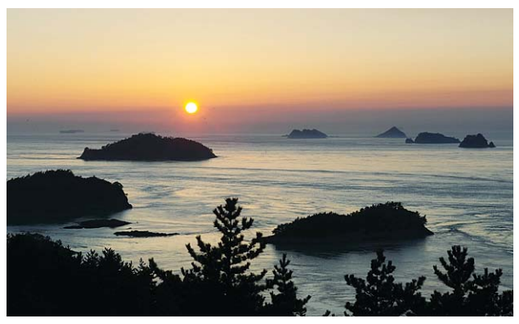
또 구례군은 '한국의 어머니산 지리산과 지리산이 빚어낸 고장 구례'라는 주제로 화엄사와 지리산 반달곰 생태체험장, 섬진강변 꽃길, 화엄사 계곡길 걷기, 동편제 전수관(판소리 체험관) 등이 선정됐다.

한편 '문화재 누림 가족 수학여행지' 32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 문화재 도서 코너에 게재된 '문화유산을 만나는 9가지 특별한 방법'에 실려 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김은종기자 lk5826@
/중부취재본부=정재근기자 jjg@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순천만 해수로

담양 소쇄원



진도 세방낙조

함평 월야 특산품 전시장 부지매각 논란

군 "기능상실…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안건 상정

의회 "농특산물 활성화 등 대책 마련 필요" 부결

함평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공유재산 부지매각을 놓고 의회와 집행부간 마찰이 일고 있다.

함평군은 지난 10일 제 186회 함평군 의회 일반 행정위원회에 함평군 월야면 7184㎡규모의 부지(함평군 특산품 전시 판매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해당지역 정수길 군의원이 "집행부가 특산품판매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강구도 하지 않은채 매각부터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등 군의회에서 안건안이 부결됐다.

함평군 특산품 전시판매장는 지난 1997년 왕골돗자리 전시판매와 홍보를 목적으로 월야면에 설립됐으나 현재는 광주~영광간 국도가 우회도로로 개통됨에 따라 기능이 상실돼 활용가치가 떨어졌다.

군은 전시판매장 부지를 월야농협에 매각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를 건립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산지유통 종합계획 수립에 통과된 시·군에 한해 공모신청을 받아 공개평가를 거쳐 2011년 5월 월야농협 등 전국적으로 19개소를 선정한바 있다.

하지만 함평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부지 매각안이 군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월야농협이 추진하는 APC 건립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광우 조합장은 "군 특산품 판매장은 월야 관문에 자리하고 있어 농가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등 여러면에서 가장 적합하다"며 "군의 빠른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수길 군의원은 "이번 군의회의 부결은 APC 사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것은 절대 아니다"면서 "특산품 판매장에 왕골 돗자리 외에 함평군 대표 농·특산물을 집중화시키고, APC는 인근에 건립하면 지역민 소득 창출이 더 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함평군관계자는 "14년간 운영한 특산품 판매장이 광주~영광 고속화국도 신설이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제기능을 못하고 있고, 왕골돗자리 농가도 초창기 200여 가구에서 10여가구로 급감했다"며 "지역활성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라도 APC 사업을 이곳에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황운학기자 hwang@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담양경찰

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관내 어린이집 원생 50명을 초청,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날 원생들은 교통안전 교육에 이어 112 종합상황실에서 순찰중인 경찰관에 무전 호출을 하고, 순찰차를 타보는 등 다양한 경찰업무를 체험했다. 담양경찰은 앞으로 어린이들에 대한 경찰서 견학을 적극 장려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통사고 예방 및 아동대상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민성태 서장은 "견학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체험프로그램에 큰 흥미를 느끼고 즐거워한다"며 "관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재근기자 jjg@

'빚 없는 자치단체' 완도군

서울대 우수 재정 상받아

'빚 없는' 자치단체로 주목받은 완도군이 우수 재정 운용으로 상을 받았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재정연구센터는 최근 완도군에 제1호 우수재정 운용 지방자치단체상을 수여했다.

김상헌 센터장과 대학원생 등 10여명은 완도군을 찾아 지방재정 운용에 대해 벤치마킹했다.

김종식 군수는 "모든 자치단체가 사업하면서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자제하고 모든 인적네트워크를 활용, 중앙단위 공모사업과 국고사업 등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행정에 경영철학을 접목한 시장개척팀의 사례도 소개했다.

김 군수는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매촉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가 차원의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여수 '시나브로길' 등 3곳

관광 활성화 사업지 선정

여수·담양·보성 등 도내 3개 시·군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관광 수용태세 개선 실행 응모사업에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담양군 죽녹원 야간 경관조명 설치사업 ▲보성군의 IT 관광환경 ▲여수시 '시나브로길' 활성화 사업이다.

죽녹원에는 산책로별로 차별화된 조명시설이 설치돼 야간에도 탐방객들에게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보성군은 지역 관광지를 스마트폰으로 소개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모바일 관광안내 사업을 펼친다.

여수시는 관내 10개 명품 탐방길인 '시나브로길'에 포토존,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납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극락전 납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납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벌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떼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비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시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봉분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납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납골당 전경

무등산 문빈정사 납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친환경 2012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돈 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란(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광시스템이 적용된 주택의 특징
태양광시스템으로 발전된 전력은 주택전기에 사용되고 남는 전기는 한전으로 역전송 됩니다.
역전송시에 한전계량기를 거꾸로 돌림으로서 전기료를 약 80~90% 전약시켜 줍니다. 비가오거나 흐린 날씨에도 태양광은 소수전력이 생산되지만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적으면 자동으로 한전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가정집
◆ 누진요금이 걱정인 곳
◆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간다
◆ 설치시 전기요금 효율 80%절감
3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월평균 약 300~350KW의 전력이 생산 가능하고 사용량이클수록 전기요금을 월 최대 약 25만원을 절약시켜드립니다.

기존청구요금(사용전력량: kWh)일때	설치시 청구요금	절 감 요 금
8만원 (약 415kWh)일 때	약 1,800원	약 78,200원
10만원 (약 460kWh)일 때	약 5,600원	약 94,400원
12만원 (약 500kWh)일 때	약 8,900원	약 11,100원
15만원 (약 540kWh)일 때	약 16,500원	약 133,500원
20만원 (약 610kWh)일 때	약 30,600원	약 169,400원
25만원 (약 680kWh)일 때	약 48,000원	약 202,000원
30만원 (약 740kWh)일 때	약 72,000원	약 228,000원

※기상 여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태양광 주택 사업 설치 사례
태양광 주택 신청안내
안녕하십니까 태양광 센터 입니다. 해마다 에너지 관리공단 수요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설치를 못하고 지연하신 주택이나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은 전화 주시면 태양광 전문가가 직접 전화후 방문상담하여 일주일 이내에 설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생 태양광 주택 보급 센터 (주)동성에너텍 ☎062-512-1180/ H.P 011-659-7001